

전일동향

글로벌 달러 강세에도...1,339.00원에 마감

7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1,343.60(15:30 기준)에서 4.60원 하락한 1,339.00(06:00 기준)에 개장했다.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와 외국인 국내 주식 매도세에도 달러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면서 보합권에 머물며 1,339.00원에 증가(06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일간 장중 변동 폭은 4.4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45.00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39.00	1341.40	1337.00	1339.00	1339.20
	엔화	845.37	847.80	842.19	845.00	-
	유로화	1506.26	1509.14	1495.49	1495.64	-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					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77	-2.83	-6.56	-14.97
	결제환율(수입)	-0.32	-1.55	-4.53	-11.34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					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					

금일 전망

수급 지지력에...1,34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8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40.40, 15:30 기준) 대비 0.75원 하락한 1,338.8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달러 강세에도 수급 및 펀더멘털 지지력에 상단 제한될 전망이다. 프랑스 등 유로존 재정 불안으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며 달러 강세 압력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, 수급 측면에서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 등 매도 우위 흐름과 설비투자, 주주환원 목적의 환전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환율 상방은 제한될 전망이다. 또한 일본 기관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 등 해외 채권을 대거 매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자금 본국 환류 기대를 자극하며 엔화가 강세를 보인 점도 원화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, 주요 통화 대비 긍정적인 원화 펀더멘털이 부각되는 점도 원화 지지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 다만, 글로벌 달러 강세와 달러 실수요 매수세는 하단을 제한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34.25 ~ 1344.75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26187.65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.75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51179.87, -341.41p(-0.66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92.27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2105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